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S the 1 요리학원
여름大 특강 개강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 스시(초밥) 반 수강생모집
에스더원요리학원 (062)385-0723,384-1984

제1780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7월 13일 (음력 5월 29일) 금요일

내년 비엔날레 졸속 우려

주제결정·작가선정·작품제작 일정 촉박…파행 불가피

재단, 신정아 감독 선임 공식 철회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직 박탈 검토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 중 내국인 감독이 중도 탈락함에 따라 내년 9월 개막하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기사 3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당초 일정보다 5개월을 더 끈 끝에 선임한 신정아 감독을 12일 학위위조 문제로 공식 지명 철회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감독 선임에 매달려야 하는 등 2008년 제 7회 광주비엔날레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술감독 선임은 전시주제와 인력구성, 참여작가선정, 작품 제작 및 설치 등 이후 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회 준비에 파행이 예고된다.

한갑수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은 12일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공동감독으로 선임된 신 교수의 학위가 허위임이 판명됐다"며 "신 교수를 내년 비엔날레 국내 감독에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국대는 물론 비엔날레 재단도 피해자니 만큼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뒤늦게 신 감독의 선임 철회로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내년 비엔날레는 전시기획 등 전 부문에 걸쳐 뒤틀릴 전망이다.

당초 재단은 외국인감독인 오쿠이 엔위저 감독이 형이상학적인 전시철학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대중적인 전시를 추구하는 신씨를 감독에 선임함으로써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신 감독이 탈락함으로써 '대중성 있는 전시기획자'를 새로 찾아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오쿠이씨는 8월25일까지 전시주제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때까지 국내 감독 재선출 문제가 마무리돼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오는 17일 긴급이사회에서 오쿠이 감독만으로 비엔날레를 치르는 방안, 국내 감독을 재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갑수 재단 이사장은 "(신 교수의 학위위조로)다소 시간이 소모됐지만 내용을 충실히 기획하고 서두른다면 내년 행사를 개최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개혁을 위한 문화예술인 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과 이사진은 신정아씨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예술인연대'에는 광주·전남 문화연대, 광주·전남 퍼포먼스 작가회, 광주 민예총 등 18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신씨는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자격으로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파리에 출장 중이며, 일정을 앞당겨 13일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성곡미술관측은 신씨가 귀국하는 대로 학예연구실장직 박탈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카타르 등 6~7國 여수 지지 철회

엑스포 유치 비상…범정부 외교전 절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4개월 가량 앞두고 한국을 지지했던 일부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이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유치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박람회 유치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범정부적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찬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유치위원회가 여수 지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지지한다던 40여개 회원국 가운데 6~7개 국가가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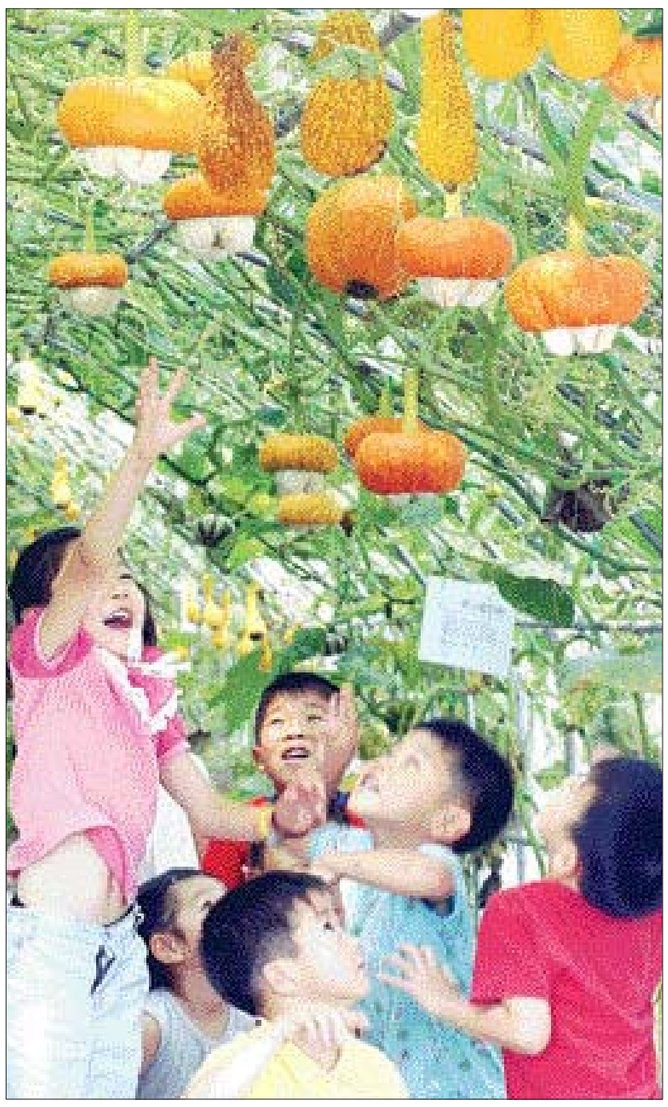
그는 또 "구체적인 곳은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 대한 지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던 중동지역 회원국 카타르가 최근 이를 철회한다고 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을 지지해온 회원국 가운데 일부가 유치 경쟁국인 모로코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한국이 모로코나 폴란드보다 지지국가 확보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어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분석하면서도, "한국으로서는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비해 회원국들의 지지의사 표명이 다소 주춤한 반면, 모로코와 폴란드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모로코 탕헤르는 이슬람권 및 아프리카 최초 개최라는 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모로코가 왕국체제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국왕이 강력한 유치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탕헤르가 국제적인 휴양지로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한편, 현재 BIE 100개 회원국 중 유럽이 36개국으로 가장 많으며 중남미(26개국), 아프리카(14개국), 아시아(13개국), 중동(8개국), 오세아니아(3개국)가 뒤를 잇고 있다. 2012 박람회 개최국은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총회에서 회원국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 '제 3회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장흥군 회진면 '호박나라 진목마을'에서 열린다. 축제 개막에 앞서 12일 행사장을 찾은 회진 명덕 어린이집(원장 김용숙) 원생들이 갖가지 모양의 호박을 보며 신기해 하고 있다. /위직랑기자 jrwi@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콜금리 0.25%P 인상

11개월만에 4.7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4.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11면〉

금통위는 이와 함께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연 4.50%로, 총액한도대출금리도 연 3.00%로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콜금리와 유동성조절대출금리, 총액한도대출금리가 인상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만이다.

콜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파워맞춤정기예금의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인상하고, 우리은행도 16일부터 적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9.79포인트 상승한 1,909.75로 마감, 1,900선 안착과 함께 2,000선을 바라보게 됐다.

금통위는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혀 콜금리 인상이 유동성 억제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금통위는 특히 "인상조정된 콜금리 목표가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코스피 1900 돌파

1800선 돌파 24일만에

코스피지수가 1,900선마저 훌쩍 넘어서며 2,000 시대를 눈앞에 뒀다.

〈관련기사 11면〉

1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9.79포인트(1.0%) 상승한 1,909.75로 마감, 올 들어 41번째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코스닥지수도 8.20포인트(1.0%) 오른 828.22로 장을 마쳐 2002년 4월19일(종가 858.80)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776조7천249억원에서 이날 1천53조6천576억원으로 276조9천327억원이나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4월9일 사상 최초로 1,500선을 돌파한 이후 1개월여 만인 5월11일 1,600선을 넘었으며 20일 만인 5월31일에는 1,700선을 정복했다.

지난 달 18일에는 1,700선 돌파 18일(매매일 기준 11일) 만에 1,800선을 넘었고 24일(매매일 기준 18일) 뒤인 이달 12일 급기야 1,900선마저 돌파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개선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조만간 지수 2,000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